

실질성장 -6.4%

‘시장 위축’ 장기적이고 뚜렷

총 32,162백만\$, 명목 2.1% · 실질 6.4% 감소로 시장 위축
선도회사들 비교적 어려운 한 해, 몬산토 ↑ · 바스프 ↓ 희비 교차

-홍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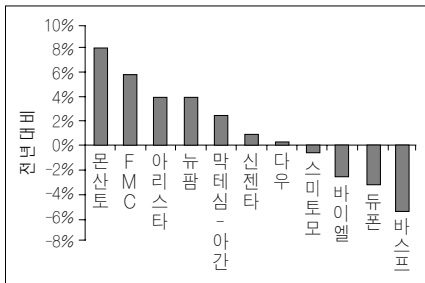
2006년도 세계농약시장은 총 32,162 백만\$로 나타났다. 이는 상반기 실적부진으로 명목상 2.1% 감소한 것이며 실질상으로는 시장이 6.4% 감소되어 감소세가 장기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먼저 바이엘, 신젠타 등 11개 선도회사를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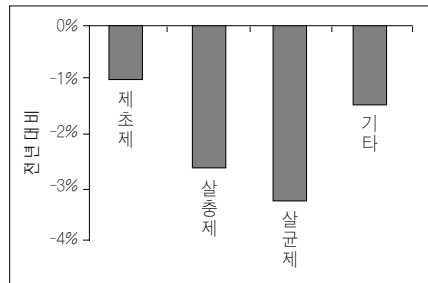
면 Monsanto가 미국에서 Glyphosate 매출 회복으로 가장 좋은 실적을 보인 반면, BASF는 오래된 제품의 철수와 브라질에서의 급격한 매출감소로 실적이 가장 좋지 않았다.

지역적으로는, 농업경제를 지속적으로 부양하는 동유럽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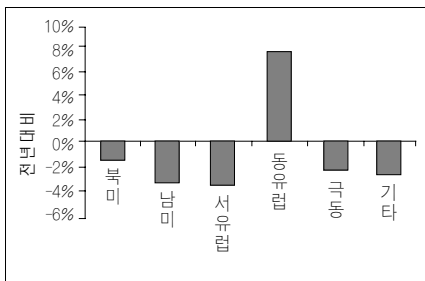
선도회사별 2006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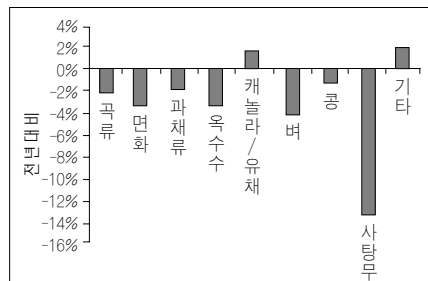
용도별 2006매출 추이



지역별 2006 시장 추이



작물별 2006시장 추이



서 가뭄이나 경지면적 감소, 낮은 농가수입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장감소의 또 다른 요인을 보면 GM 작물 팽창, 좋지 못한 기후, 연료 및 비료가격 상승, 열악한 농가경제, 보조금 지불 축소, 제네릭 농약의 경쟁심화 등을 들 수 있다.

2006 회사별 실적

(표 1)은 2005년과 비교, 2006 농약회사의 매출 실적을 상세하게 나타낸 것이다. 현지통화와 동일조건 즉, 미국달러 기준으로 하여 표

기하였다.

2006농약시장 분석

(표 2)는 실질무역 인플레이션과 실질 환율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2001년 이후 농약시장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미국달러 기준).

1996-2006 농약시장 추이

| | 연간 성장률(%) | | |
|------|-----------|-----------|-----------|
| | 1996-2006 | 2001-2006 | 2005-2006 |
| 명목성장 | -0.1% | +2.9% | -2.1% |
| 실질성장 | -2.2% | -2.9% | -6.4% |

표 1. 2005-2006 회사별 매출

| 회 사 | 2005 | | 증 감 | | 2006 | |
|--------------|--------------|--------------|--------------|--------------|--------------|--------------|
| | 현지통화 (백만) | 미국달러 (백만) | 현지통화 (백만) | 미국달러 (백만) | 현지통화 (백만) | 미국달러 (백만) |
| 바이엘크롭사이언스 | *5,568 | \$6,916 | -3.8% | -2.8% | *5,358 | \$6,724 |
| 신젠타 | \$6,330 | \$6,330 | 0.8% | 0.8% | \$6,378 | \$6,378 |
| 바스프 | *3,298 | \$4,096 | -6.6% | -5.7% | *3,079 | \$3,864 |
|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 | \$3,090 | \$3,090 | 0.2% | 0.2% | \$3,097 | \$3,097 |
| 몬산토 | \$2,759 | \$2,759 | 8.1% | 8.1% | \$2,982 | \$2,982 |
| 듀폰 | \$2,254 | \$2,254 | -3.4% | -3.4% | \$2,177 | \$2,177 |
| 막테삼-아간 | \$1,543 | \$1,543 | 2.5% | 2.5% | \$1,581 | \$1,581 |
| 스미토모 케미칼 | ¥142,111 | \$1,290 | 4.8% | -0.7% | ¥148,999 | \$1,281 |
| 뉴팜 | A\$1,563 | \$1,191 | 5.1% | 3.9% | A\$1,642 | \$1,237 |
| 아리스타 라이프사이언스 | ¥99,778 | \$906 | 9.7% | 3.9% | ¥109,460 | \$941 |
| 에프엠씨 | \$725 | \$725 | 5.8% | 5.8% | \$767 | \$767 |

(*단위: 유로)

표 2. 2006 농약시장 분석

| 구 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
| 명목 시장매출액(백만\$) | 27,944 | 26,561 | 28,515 | 32,349 | 32,867 | 32,162 |
| 전년도 시장매출액(백만\$) | 29,184 | 27,944 | 26,561 | 28,515 | 32,349 | 32,867 |
| 명목성장 | -4.2% | -4.9 | +7.4 | +13.4 | +1.6 | -2.1 |
| 실질무역 인플레이션 | +3.6% | +3.6 | +4.1 | +3.6 | +3.3 | +2.9 |
| 실질 환율 ¹ | -6.2% | -3.3 | +5.9 | +4.5 | +3.5 | +1.6 |
| 실질성장 ² | -1.5% | -5.1 | -2.6 | +4.9 | -5.0 | -6.4 |
| 실질시장가치(백만달러) (2006 달러환산 기준) | 37,335 | 35,434 | 34,506 | 36,159 | 34,361 | 32,162 |

1 : 달러화 강세 시 음(-) 2 : 실질성장 = 명목성장/(인플레이션 × 환율)

3년을 명목성장으로 보았을 때, 2006농약시장은 2.1% 감소한, 32,162백만달러였다. 이를 환율과 인플레이션 영향을 제외하여 실질성장으로 보면 매출은 6.4% 감소하였다. 지난 10년을 살펴보면 감소 추세였으며 단지 1998년과 2004년에 두해만 증가하였다. 실질성장 기준으로 2006년 시장은 2001년 보다 13.9% 작아졌으며, 1996년 보다는 20.2% 작아졌다.

세계 농약시장은 식량부족으로 물가가 상승되었던 10년 전에 정점을 이루었다. 1996년 세계시장은 32,350백만달러(2006달러기준 40,281백만달러)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유전자변형 작물이 출시되어 밀에서의 제초제와 살충제 수요가 감소되었다. 감소에 미친 요인을 보면 물가하락, 농가경제 약세, 주기적 경제위기, 열악한 기후와 제네릭 제품 경쟁심화 등을 들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실질성장은 지난 10동안 살펴보았을 때 평균 2.2%, 5개년간 2.9%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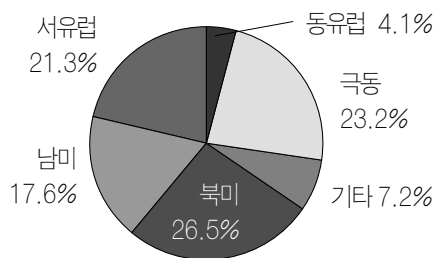
인플레이션을 제외하고 2006 시장에 미친 주요요인으로 열악한 기후, 연료값 상승, 경지면적 감소, GM작물 침식, 농가경제(특히 브라질) 빈약, 대두에서 살균제 수요 감소와 제네릭 제품의 가격경쟁 심화 등을 들 수가 있다.

또 높아진 Glyphosate 매출, 4/4분기 매출회복, 유럽에서의 밀에 대한 신제품 출시, 브라질 사탕무 강세 및 중국과 동유럽의 시장 확대가 다소 반전시켰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제초제는 1.1%감소한 14,920백만달러로 다소 감소하였지만 실적이 가장 좋았다. 동유럽에서 봄이 늦게 시작되고 건조한 기후로 잡초발생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하반기에 겨울 작물의 재배확대로 인하여 매출이 회복되었다. 열악한 기후는 재배면적 감소와 제초제 저항성 작물 재배 확대, 더불어 미국에서의 비선택성 제초제 매출에 영향을 미쳤다. 높은 농가경영비로 인하여 Phenoxy계와 같은 제품의 사용량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비선택성 제초제의 매출 감소는 Glyphosate 및 Glufosinate와 같은 선택성 제초제의 매출 증가로 상쇄되었다. 남미지역을 살펴보았을 때, 아르헨티나에서의 제초제 매출은 대두 재배면적이 확대되어 증가되었다. 브라질에서는 Glyphosate 저항성 대두 재배면적이 확대되어 제초제 매출이 감소되었다. 부분적으로 사탕무에서의 성장이 반전시켰다. 호주에서는 심한 가뭄으로 제초제의 수요가 급감하였다. 그 밖의 지역을 살펴보았을 때, 중국과 동유럽에서의 농업경제 발전으로 제초제 사용이 늘어났다.

2006년도 살충제 매출은 2.9% 감소한 8,471백만달러였다. 2006년 초 북반구가 다소 추위 해충 발생이 감소되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제네릭 제품 영향으로 가격회복이 제한적으로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매출이 큰 Imidacloprid의 바이엘 특허가 미국에서 2006년에 만료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Nufarm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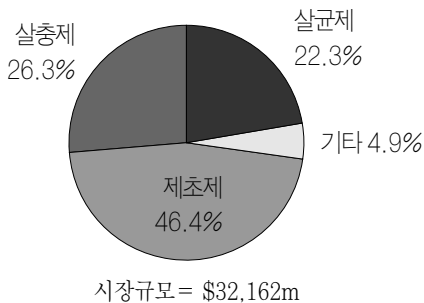
지역별 2006농약시장 점유율



시장규모 = \$32,162m

Makhteshim-Agan과 같은 회사에서 제네릭 제품을 생산하게 만들었다. 피레스로이드계와 카바메이트계도 가격 압력을 받았다. 세계적으로 재등록과 시장 발전으로 Monocrotophos와 같은 오래된 제품들은 서서히 단계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이런 경향은 Thiamethoxam과 Clothianidin과 같은 새로운 고효율성 제품 출시에 영향을 주었다. Bt 작물의 증가는 시장에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 또 다른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국에서는 수출 작물 잔류허용 기준 및 자체 기준 마련으로 Fipronil과 같은 더욱 안전한 살충제 확대를 이끌어 냈다.

용도별 2006농약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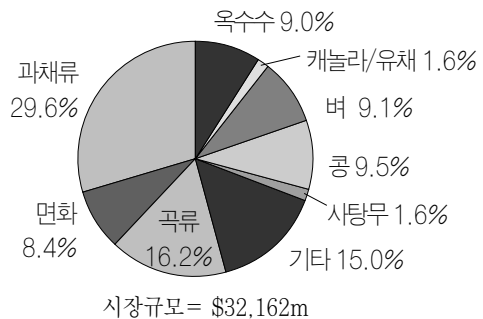


또 살균제 매출은 3.5% 감소한 7,185백만달러였다. 미주지역에서 낮은 발병과 대두 녹병 살균제 수요의 지속적인 감소로 영향을 받았다. 유럽의 밀에 있어서 Strobilurin계에 대한 Septoria 저항성이 문제로 대두가 되어 Triazole과 Chlorthalonil과 같은 다른 약제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Prothioconazole은 짧은 시간에 시장 선도품목이 되었다. 유럽의 살균제 매출은 밀 재고가 낮아 겨울밀 재배면적이 증가되어 강하게 회복되었다. 브라질에서는 대두면적 감소, 낮은 발병 및 농가 유동성 문제가 대두녹병 살균제 감소와 더불어 발생하

였다. 미국에서도 대두 녹병균이 계속 확산되었지만 살균제 수요는 낮았다. 적정 재고 조절로 도매상의 매출이 정점을 이루었다. 기타 지역을 보면, 오스트레일리아 살균제 매출은 심한 가뭄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일본에서의 수도에 대한 매출도 좋지 않았다.

기타 작물의 농약시장은 농약매출을 2.3% 증가를 주도하고, 에탄올 생화학 연료의 수요 증가로 사탕무 시장이 증가하였다. 캐놀라 및 유채도 생화학 연료 증가에 힘입어 증가를 기록하였다. EU 설탕 개혁의 영향으로 사탕무가 15.1% 감소하였으며, 또한 기타 모든 작물이 감소하였다. 수도용 농약은 일본과 한국의 시장정체로 4.6% 낮아졌다.

작물별 2006농약시장 점유율



미국 옥수수 면적 감소, 건조한 기후 및 Bt 작물의 영향으로 3.7% 떨어졌다. 면화도 인도에서 Bt 면화 증가로 3.7% 떨어졌다. 밀도 열악한 기후의 영향으로 2.5% 감소하였다. 과일과 채소 매출의 경우 건조한 기후와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2.0% 떨어졌다. 비록 미국,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의 Glyphosate 매출이 증가하였지만, 브라질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의 충격을 반전시키지 못하였고 대두 녹병 살균제 수요도 감소하여 대두도 1.5% 하락하였다. Y